

“비싸서 못 산다”는 개미들… ETF로 주도주 쫓개 담는다

반도체·전력기 ETF로 자금 유입 주도주 급등에 직접투자 부담 TIGER 반도체TOP10 순매수 1.8조 단일종목 ETF 출시엔 투자행렬 가속

직장인 윤모(42)씨는 이달 초 처음으로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에 1700만원을 투자했다. 효성중공업 등 전력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와 코스피 200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두 가지다. 윤씨는 “요즘 핫하다는 주식은 가격이 너무 올라 ETF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성장성 높은 기업들에 ‘묶음’으로 투자할 수 있어 한 두 종목에 묻어두는 것보다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 치우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 증시를 이끌던 ‘알주식’에 대한 매도세가 커지는 동시에, 이들 종목을 추종하는 ETF로 개인 자금이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ChatGPT로 생성한 전력기 투자를 고심하는 투자자 이미지

◆증시자금 블랙홀 ETF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TIGER 반도체TOP10 ETF’는 이날 기준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1조7666억원을 기록했다. 순자산은 10조4126억원으로, 국내 상장 주식형 테마 ETF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연초 2조8000억원 수준이던 순자산이 세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AI 에이전트 서비스 확산으로 메모리는 이제 AI 산업의 경제성을 결정짓는 핵심 자원이 됐다”며 “해당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 투자를 통해 반도체 업황 회복 국면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신한자산운용의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ETF’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반도체 투자 수요를 빨아들인다. 이 상품은 지난 3월 17일 110억원 규모로 상장한 이후 이틀 만에 순자산 1000억원, 일주일 만에 2000억원을 돌파했다. 이어 상장 한 달 만에 5000억원을 넘어섰고 현재 8871억원으로 불어났다. 해당 ETF의 연초 이후 개인 투자자 누적 순매수 금액은 4259억원에 달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올해 들어 ‘ACE AI반도체TOP3+’ ETF로 유입된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이 1053억원을 넘었다. 전력기 기업을 담은 TIGER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ETF(연초 이후 2017억

원), KODEX AI전력핵심설비(4170억원) 등에도 개인 자금이 빠르게 유입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지수를 이끄는 대형주들의 주가가 급등하며 변동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개별 종목에서 ETF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효성중공업 등 시기종액 상위 종목들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 주요 종목들의 주가 상승 속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낄 만큼 가파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YTD)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은 72.76%, SK하이닉스는 92.02%에 달한다. 효성중공업(115.50%)과 LS일렉트릭(165.48%)의 상승률은 더 가파르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개별 종목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ETF로 자금이 몰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직장인 이모(30)씨는 “그동안 경험했던 코스닥은 실적보다는 운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부가 코스닥 3000시대를 목표로 제시한 만큼 지수 자체의 상승 여력은 있는 것 같은데, 개별 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기는 어려워서 ETF

를 선택했다”고 했다.

◆ETF 개미, 다시 반도체로… 선순환 장세 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주식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ETF로 투자처를 다양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진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본부장은 “최근 반도체주의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AI 수요 증가와 AI 설비투자 지속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며 “AI 인프라의 핵심이 되는 HBM 3대장에 집중 투자하는 ACE AI반도체TOP3+ETF 투자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가 다음 달 출시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ETF 투자 행렬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의 주도주에 레버리지 투자 할 수 있는 상품이어서 국내외 투자자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며 “단일 종목 ETF가 도입되면 해외 투자 수요 일부가 국내 시장으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하정윤 기자



zalkova@metroseoul.co.kr metro

중동 사태에 건설자재 수급 ‘경고등’… 분양가 상승 불가피

건설공사비지수 133.69 역대 최고 자재수급지수 첫 70선대로 급락 유가·물류비 상승에 원가 부담 확대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설 자재 수급 불균형과 이에 따른 공사비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중동발 약재가 이어지면서 건설자재수급지수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만큼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은 물론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건설공사비지수 133.69다.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년 127.10으로 3년간 30% 가까이 뛰었다. 2024년 1월 129.77, 2025년 1월 131.03 등으로 다소 안정되던 것이 올해 들어 상승폭이 확대됐다.

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 역시 지난 2월 131.50으로 관련 자료 공표를 시작한 2000년 1월 이래 역대 최고치다.

건설기술연구원은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최고치 기록을 지속 경신하고 있

으며,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안정한 대외 경제 상황으로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너지와 물류비의 급격한 상승은 국내 건설업계에는 직격탄이다. 중동 사태 이후 국제유가는 급등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자재 수급 우려는 현실이 됐다.

올해 3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67.8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포인트(p) 더 하락하면서 기준치인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CBSI 세부실적지수 가운데 자재수급지수는 74.3으로 전월 대비 16.7p 하락했다. 지난 2024년 5월 자재수급지수를 신규 도입 이후 70선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연구원은 “자재수급지수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며 이례적으로 70선대로 진입했다”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자재 시장 불안 등 공급 여건 악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언제나 든든하게~

노란우산이 함께해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복리 이자 목돈 마련



신속한 비대면 대출



공제금 압류 금지

홍보대사 소유미

홍보대사 탁재훈

KBIZ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 심의필 제26-025호(2026.03.06 ~ 2027.03.01) *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가입문의 **1666-9988**